

PA-018

바닐라 삼목번식에 적합한 용토 선발 및 증식

박종숙^{1*}, 배세홍¹, 오훈탁¹, 장지혜², 김주¹

¹전북 군산시 전북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

²전북 익산시 전북농업기술원

[서론]

바닐라는 주 재배지역이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며, 세계적으로 90%가 인공 바닐라 향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한 재배법 확립이 필요하다.

[재료 및 방법]

적합한 삼목용토를 선발하기 위해 수태, 피트코스, 펄라이트, 코이어 등 4종을 이용하여 바닐라 3, 5, 7마디로 삼목을 실시한 후 신초길이, 엽수, 경경 등 생육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증식은 코이어배지 비율을 3조건(칩:더스트=85:5, 8:2, 10:0)으로 조성하여 실시하였으며, 시설형태로는 1중, 2중하우스와 유리온실에서의 생육을 비교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수태, 피트코스, 펄라이트 및 코이어 삼목용토에서 신초길이는 수태 5마디 삼목묘에서 54.1cm, 7마디 51.8cm, 피트코스 5마디에서 48.8cm로 가장 길었으며, 신초엽수는 수태 5마디 삼목묘에서 10.4개로 가장 많았다. 삼목묘의 생존율도 수태와 피트코스에서 100%로 펄라이트와 코이어 처리구보다 높았다. 펄라이트 7마디 처리구의 생존율은 50.0%로 가장 낮았으며, 코이어 7마디 처리구의 경우 58.3%로 다음으로 낮았다. 신초의 경경도 코이어 처리구에서 가장 작은 결과를 보였다. 엽폭의 경우는 수태 처리구에서 가장 큰 경향을 보였다. 바닐라 증식은 1m 삼목묘를 사용하였으며, 기부에 삼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수태를 감싸고 삼식을 하였으며, 와그너포트에 코이어 칩과 더스트 비율을 5:5, 8:2, 10:0을 처리하였다. 5:5 비율에서 초장이 150.8cm로 가장 작았으며, 10:0 비율에서 173.3cm, 8:2 비율에서 198.2cm로 가장 컸다. 엽수에 있어서는 코이어배지 비율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. 시설형태별로 바닐라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, 1중 비닐하우스는 내부온도가 10°C 이하일 때 저온장해가 발생하고 동사하였다. 2중 비닐하우스의 경우 삼목 후 60일 후 초장의 생장률이 6.0%로 생육이 매우 더딘 경향을 보였으며, 유리온실의 경우 39.1%의 초장의 생장률을 높였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지역특화기술개발과제(PJ013474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 드립니다.

*주저자: Tel. +82-63-290-6061, E-mail. jspark88@korea.kr